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SOUTHEAST ASIA

동남아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05~10/11

1. Southeast Asia Port Congestion and Shipping Delays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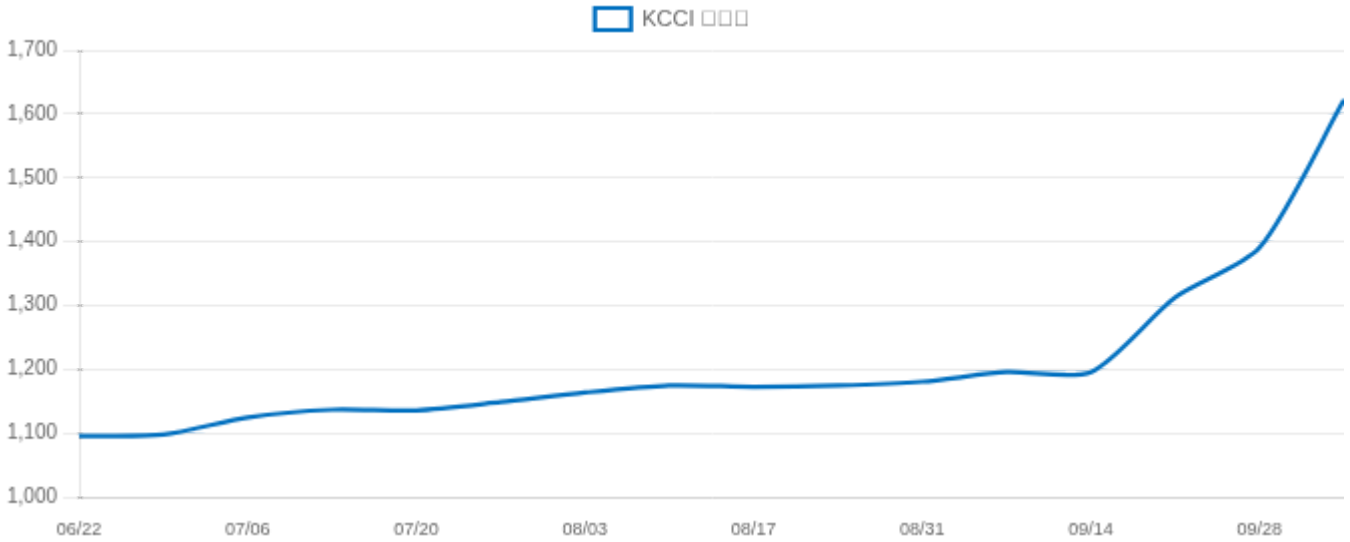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동남아시아에서는 항만 혼잡과 해운 지연이 제조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항공 화물이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물동량 흡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물류 차질은 역내 생산 및 수출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흐름으로 작용함.

해운 지연은 역내 제조업체들의 재고 관리와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을 야기할 전망임. 항공 화물은 긴급 화물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으나 운임 부담과 화물 공간 제약으로 전 물량을 흡수하기 어려워, 물류 병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 경로 재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동남아	1,622 $/FEU	10/05	+16.6%	+35.6%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10/05

Southeast Asia Port Congestion and Shipping Delays

> **동남아시아 항만 혼잡과 해운 지연이 제조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항공 화물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물동량 흡수에는 한계가 있음.**

동남아시아 주요 항만의 혼잡과 해운 일정 지연이 지속되면서 역내 공급망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제조 거점에서 유럽, 미국, 중동, 중국, 인도로 연결되는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자 화주들이 운송 수단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해운 지연의 주된 원인은 특정 항만으로의 물동량 집중과 선복 부족, 항만 인프라의 처리 능력 한계로 파악됨. 이로 인해 리드타임이 연장되고 재고 관리 비용이 상승하면서, 화주들은 소량·고부가가치 화물을 중심으로 항공 화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파타야 항공과 같은 지역 항공 화물 사업자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태국과 주변 국가를 잇는 단거리 화물 노선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양곤 노선의 주간 운항 편수가 2024년 4회에서 8회로 늘고 2026년 말까지 12회로 증편될 계획임. 그러나 항공 화물은 해상 운송의 대체재로는 용량이 제한적이며, 항만 혼잡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함.

항공 화물 확대는 일부 화주에게는 단기적 해결책이지만, 운임 상승과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노선은 수요가 크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하여 항공사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함. 해운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 화물 수요는 더욱 증가하겠으나, 전체 물동량의 극히 일부만 흡수할 것으로 보임.

- 동남아 항만 혼잡으로 해상 운송 리드타임 증가, 제조 공급망 차질 발생.
- 파타야 항공, 양곤 노선 주 8회 운항 (2024년 4회 대비 2배 증가), 2026년까지 12회 확대 계획.
- 항공 화물은 고부가가치·긴급 화물에 국한되어 해운 대체 효과 제한적.
- 말레이시아·베트남 항공 화물 시장은 경쟁 및 가격 압력 심화.
- 항만 혼잡의 근본 원인(인프라 부족, 물동량 집중)에 대한 해결책 부재.

전망

동남아시아 항만 혼잡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해운 지연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임. 이에 따라 항공 화물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운임 상승과 지역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장기적으로는 항만 인프라 투자와 물동량 분산 정책이 병행되어야 공급망 안정화가 가능할 것임.

시사점

화주 — 해운 지연에 대비해 항공 화물과 해상 운송을 혼용하는 복합 운송 전략을 수립하고, 재고 완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포워더 — 항공·해상 운송 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화주에게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항만·선사 — 항만 처리 능력 확충과 선박 스케줄 최적화 등 항만 혼잡 완화를 위한 투자와 운영 개선이 시급함.

참고자료: Air Cargo Week, Connecting Southeast Asia (검색일: 2026-10-11)